

한-중 공무원 중국 진출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'맞손'

- 특허청, '한-중 지식재산 교류회' 운영(7.9~12) -
- 한-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 및 중국 수출기업 대상 연구회(세미나) 등 진행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중국 지재권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국내로 초청해 7. 9.(화)~12.(금)까지 '한-중 지식재산 교류회'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최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, 케이(K)-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 선점, 위조품 피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이 빈발하고 있다. 이에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해외 주요국가와 지식재산 교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.

이번 교류회는 중국 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무원 및 유관기관을 초청해 ①한-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, ②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연구회(세미나) 및 ③기업 현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
①한-중 지재권 보호 공무원 간담회(7. 10.(수) 10:00, 정부대전청사)에서는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업무를 소개하고 양국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된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. 한-중 양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.

②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(7. 11.(목) 10:00, 서울 롯데호텔)는 중국 수출기업 20개사 지재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방문단 기관 소개 및 업무 현황 공유, 중국 지재권 제도 발표,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.

이날 연구회(세미나)에서 중국 측은 ▲ 중국 내 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 절차 및 방안 ▲ 위조상품 신고 절차 및 필요서류 ▲ 위조상품 피해 규모 산출 방식 ▲ 악의적 상표 출원에 대한 정책 및 악의성 판단 기준 ▲ 중국 상표법 개정안 주요 조항 등 중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지재권 쟁점(이슈)에 대해 발표한다. 중국 진출 기업들이 질문하고 중국 측이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.

③기업 현장 방문(7. 11.(목) 15:30, 농심 안양공장)에서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을 중국 지재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현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.

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”면서 “우리 기업들이 이번 연구회(세미나)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세미나 현수막 및 한-중 지식재산 교류회 추진 계획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한덕원 (042-481-5182)
		담당자	서기관	강성현 (042-481-3917)
			주무관	양건우 (042-481-5483)



□ 목적

- 중국 지재권 관련 정부·기관과의 교류협력 촉진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현지 지재권 보호에 우호적 환경 조성
- 수출기업 대상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IP 애로를 해소하고 현지 최신 IP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 제공

□ 행사 주요내용

- 행사명 : 2024년 한-중 지식재산 교류회
- 일 정 : '24. 7. 9(화) ~ 12(금) [3박 4일]
- 주최/주관 : 특허청 / 한국지식재산보호원(한국지식재산협회 협조)
- 대 상 :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공무원 등 8명

□ 주요일정(안)

일 자	주요일정	지역	비고
7. 9(화)	○ 입국	인천	
	○ 인천공항 세관 통관 업무현장 방문		
	○ 환영만찬	서울	
7. 10(수)	○ 특허청 방문 간담회	대전	
	○ 관세청 방문 간담회		
7. 11(목)	○ 중국 수출기업 지재권 세미나	서울	롯데호텔
	○ 기업 현장방문	안양	농심
7. 12(금)	○ 문화탐방 및 오찬	서울	청와대
	○ 출국	인천	